

초중등 교사의 경제적 역량 : 경제교육 참여와 지각된 효용성에 기반한 다차원 프로파일적 접근*

박 상 은** · 노 현 중***

【요약문】 교사의 경제교육 참여와 지각된 효용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예비 교사 및 현직 교사를 위한 정책 설계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의 '2020년 학교 경제교육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초·중등교육에서는 효용성을 높게 인식하는 교사 집단에서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와 의사소통이 이루어졌으며, 학생들의 성취도와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중등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사가 효용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높은 성취도와 만족도를 보였으며, 교사들은 경제교육에 대한 어려움을 덜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중등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교사의 경제교육 효용성 인식이 핵심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교사가 경제교육의 가치를 높게 평가할수록 더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사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들이 경제교육의 실질적 가치와 효용성을 직접 경험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교사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학교 경제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경제교육 참여, 지각된 효용성, 교사 교육정책, 교사의 경제적 역량, 초중등 교사

* 본 연구는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의 '2020년 학교 경제교육 실태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한 것입니다.

** 제1저자, 대구미래교육연구원 교육정책연구부 책임연구원(sangeunpark@korea.kr).

*** 교신저자,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강사(ligel96@hanmail.net).

I. 서론

경제교육 연구자들은 교사의 준비도와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경제학 교육 경험, 이수한 대학원 학점, 경제학 및 일반 현직 교육 시간 수 등을 대리 변수로 사용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일관되게 교사의 지식, 교육 경험, 준비도가 학생들의 경제학 성취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주었다(Butters et al., 2011). 더불어 교사의 경제교육 준비도는 그들이 느끼는 경제교육의 효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경제교육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가는 동기가 되고 교사 교육과정 설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교육 연구는 주로 초·중등학생과 대학생, 특히 경제 과목 수강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현직 초·중등 교사의 경제 이해력과 학습 행동을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는 교사의 경제학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오랜 인식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현상으로, 이 분야에 대한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Lewis and Johnstone, 1971; Grimes et al., 2010 재인용).

교사의 경제교육 참여와 지각된 효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예비 교사 및 현직 교사를 위한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초·중고 교사들의 학부 경제학 수업시간, 현직 워크숍 및 자기개발시간, 경제교육에 대한 유용성 및 가치 인식 정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인을 대상으로 경제와 금융 주제에 대해 프로파일적 접근을 통해 특성을 살펴본 연구가 일부 존재하지만(노현종박사은, 2018; Sinha et al., 2018), 교사의 특성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매핑하는 선행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교사의 경제교육 참여와 효용성 인식 간의 인과관계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현직 교사들의 경제교육 참여와 효용성 인식의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두 요소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의 ‘2020년 학교 경제교육 실태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교사의 경제적 역량과 특성의 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교사의 경제교육 참여와 효용성 인식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효과적인 교사 교육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예비 교사 및 현직 교사를 위한 경제교육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계하는 데 중요한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II. 선행 연구 검토

1. 교사의 경제교육 현황과 문제점

학교에서 학생들의 경제 이해력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는 교사의 경제 지식과 교수 능력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상과 거리가 있다. 초등학교에서 경제를 가르치는 교사들은 경제 교과 과정 개발과 교수법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부족한 실정이다(Akhan, 2015). 이는 비단 초등학교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사회과 및 고등학교 경제학 교사들의 경제교육 부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으며(Bosshardt and Watts, 1990), 많은 교사들이 경제 과목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만한 경제적 소양과 자신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Akhan, 2015; Anthony et al., 2015).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은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된다. 한진수(2002)의 연구에 따르면, 심화과정을 이수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TEL (Test of Economic Literacy) 점수조차 67.8점에 그쳤다. 사범대학 학생들의 경제이해력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다. 김형규·조병철(1998)은 사범대학 학생들의 평균 경제이해력 수준이 45.85점에 불과하다(송민자·박형준, 2008 재인용)고 보고한 반면, 송민자·박형준(2008)의 연구에서는 사범대학 학생들의 TEL 점수가 83.6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후자의 연구에서도 학생들의 국제경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사들의 경제학 지식 부족은 필연적으로 학생들의 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 고등학생의 경제학 성취도는 다른 사회과 과목에 비해 낮은 시험 점수로 특징지어지며, 이는 중등 사회과 예비 교사들이 다른 사회과 분야에 비해 경제학에 대한 공식적인 교육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Ayers, 2016; Walstad and Watts, 2015). 이러한 결과들은 교사 양성 과정에서 경제학 교육의 강화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학생들이 경제에 대해 배울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경제교육이 필수적이다. 교사가 모르는 내용을 학생들이 배울 수 없기 때문에, 교사들은 경제 수업을 통해 경제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함양해야 한다. 따라서 예비 교사 교육과 현직 교사 연수에서 경제학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교사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경로를 통해 경제 과목을 배운다. 첫 번째는 학부 또는 ‘예비 교사’ 교육 기간 동안 경제학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다. 교사의 경제 이해도를 높이는 두 번째 경로는 이미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재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현직’ 과정 또는 ‘워크숍’이다(Walstad and Watts, 2015).

미국의 중등 사회과 교사 자격증에 관한 주정부 표준에 따르면, 중등 사회과 교사는 최소한의 경제학 학부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Walstad and Watts, 2015). Bosshardt and Watts (2005)에 따르면, 사회과 자격증을 취득한 중등교사가 경제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평균 3.63학점에 불과하며, 사회과학 또는 역사에서 이수한 47.8학점의 약 7.6%에 해당한다. 실제로 예비 교사 중 32%는 학부 경제학 과목을 수강한 적이 없으며, 초등 사회과 교사의 경우 경제학 과목 이수 평균은 2.1학점에 불과하고, 이들 중 53%는 경제학 강의를 전혀 수강하지 않았다. Bosshardt and Walstad (2019)에 따르면, 경제를 가르칠 가능성이 높은 교사의 40%가 학부에서 과목을 이수하지 않았으며,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19%, 중학교 교사의 경우 48%,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76%에 달한다. 사회과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고등학교 교사들은 학부 시절 평균 약 1.5개의 경제학 과목만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은경(2021)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육대학의 경제 교양 수업 현황은 예비 초등교사들의 경제교육 기회가 매우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교육대학에서 교양 경제 수업은 2-3시간 시수로 저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007년(안병근, 2007)에 비해 2021년에는 교양 경제 수업 개설 대학 수와 필수 지정 대학 수가 감소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7개 교육대학에서 저학년 때 교양 경제를 선택하지 않으면 졸업까지 경제 관련 수업을 전혀 듣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사회과교육과 학생들조차 전공선택을 수강하지 않으면 경제 수업 없이 졸업이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은 많은 예비 초등교사들이 경제 수업을 한 번도 듣지 않고 졸업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는 초등 경제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의 초중고 교사들의 경제교육 준비도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2020년 학교 경제교육 실태 조사(서중해 외, 2020)는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이 조사에 따르면, 초등교사의 35.2%, 중학교 교사의 5.8%, 고등학교 교사의 6.9%가 경제 과목을 전혀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초등학교 교사의 47.5%는 1~2 과목만을 이수했고, 중학교 교사는 1~2과목(32.3%) 또는 3~4과목(33.2%)을 이수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경제학 관련 과목을 3~4과목(34.2%) 이수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초중고 교사들, 특히 초등교사들의 경제교육 준비도가 매우 부족함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는 학생들의 경제 이해력 향상을 위해 교사 양성 과정에서 경제학 교육의 강화가 시급히 필요함을 시사한다.

2. 교사의 경제교육이 학생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학부 경제교육의 부족은 직무 교육이나 워크숍을 통해 경제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은 종종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지며, 경제학 원론 과목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Walstad and Watts,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교사를 위한 경제학 교육 프로그램은 예비 교사 교육에서 나타난 경제학 지식의 부족을 보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Swinton et al. (2012)의 연구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연구는 조지아 주의 ‘고등학교 경제학 교육 워크숍’(HSEW)의 효과를 평가했다. 연구진은 고정 효과를 포함한 다양한 모델을 사용하여 HSEW의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HSEW에 참석한 교사의 학생들은 표준화된 경제학 시험(EOCT)에서 0.02~0.06 표준편차(SD)만큼 점수가 향상되었으며, 이는 다른 경제학 워크숍의 평균 향상보다 높은 수치였다. 이 연구 결과는 이틀 간 진행된 HSEW가 비용 대비 효과적인 교육 방식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워크숍을 통해 경제학 교사의 교수 역량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경제학 성취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현직 교사를 위한 경제학 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과 효과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이다.

교사가 이수한 경제학 과목은 학생들의 경제 이해력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교사의 경제학 준비 정도가 초등 및 중등 학생의 경제학 학습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Allgood and Walstad, 1999; Bosshardt and Watts, 1990; Walstad and Watts, 2015). Bosshardt and Watts (1990)의 연구는 고등학교 경제학 교육에서 자격을 갖춘 교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의 시험 점수를 평균 이상으로 향상시킨 고등학교 교사들은 평균 17학점의 경제학 과목을 이수했으며, 이는 평균 교사(11학점)나 평균 이하의 교사(8학점)보다 훨씬 많은 수치였다. 이는 교사 대상 경제교육 개선 프로그램이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llgood and Walstad (1999)의 연구는 교사를 위한 경제학 석사 학위 프로그램이 고등학교 경제학 교사의 경제 지식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이는 해당 교사의 학생들의 경제학 학습 향상으로 이어졌음을 보고했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제학 학점이 적은 교사들도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경제 이해력이 향상되어, 학점을 많이 이수한 교사들의 성과에 점차 근접하게 되었다. Butters, Asarta, and Fischer (2011)의 연구는 미국 네브래스카 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교사가 학부 학위 취득 후 이수한

경제학 현직 학점 수가 증가할수록 고등학생의 경제학 시험 점수가 향상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효과는 교사가 19학점 이상의 경제학 현직 학점을 이수한 경우에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는 일반적인 현직 연수가 경제학 분야의 정규 교육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한다는 점도 밝혀냈다.

Grimes et al. (2010)의 연구는 초·중·고 교사의 경제 이해력 점수(TEL)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OLS 분석을 통해 평가했다. 이 연구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교육 배경, 인적 자본 투자, 교육 환경 등을 독립 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교사 간 TEL 점수에 큰 차이가 있었으며, 고등학교 교사들이 대학에서 경제학 과목을 초등학교 교사보다 평균 두 배 더 많이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학 학점이 TEL 점수에 미치는 영향은 초등학교 교사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중등학교 교사의 경우, 전문 워크숍이나 세미나가 경제 이해도 향상에 더 효과적이었다. 연구는 또한 교사의 연령과 경제 이해력 간의 흥미로운 관계를 발견했다. 교사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경제 이해력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향상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는 특히 초등학교 교사들 사이에서 두드러졌으며, 실제 수업 경험을 통한 경제 지식 습득으로 해석된다. 한편, 여러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일수록 경제 이해력 점수가 낮았으며, 독립적인 경제 과목을 가르치는 고등학교 교사들은 TEL 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0년에 실시한 전국 단위 초·중·고 학생 경제이해력 조사와 학교 경제교육 실태 조사 자료를 활용한 신우진(2022)과 신세라(2024)의 연구는 교사 요인이 학생의 경제이해력에 미치는 영향이 학교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초등학교에서는 교사의 경력과 경제 수업에 대한 어려움 인식이, 고등학교에서는 교사의 경제학 과목 이수 여부와 경제 수업 자료 준비 시간이 학생의 경제이해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중학교에서는 유의미한 교사 요인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방법론적 한계로 인해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¹⁾ 신우진(2022)의 분위수 회귀분석은 더

1) 신우진(2022)과 신세라(2024)의 연구에서 활용한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데이터는 특성상 학생 변수가 성별로만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이 데이터를 사용한 다층모형 분석에서 1수준인 학생 수준의 변수가 성별에 국한된 반면, 2수준인 교사 관련 요인들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구조는 학생 개인 수준의 분산을 교사 수준 변수로 과도하게 설명하게 만들어, 교사 관련 변수의 효과가 과대 추정될 수 있으며 교사 특성이 학생 경제이해력에 미치는 실제 효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교사 특성이 학생 경제이해력에 미치는 진정한 효과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발생하며, 이를 고려한 신중한

육 세분화된 결과를 제시했다. 교사의 경제 과목 이수 여부는 경제이해력이 낮은 학생들에게, 수업 자료 준비 시간은 중상위 수준 학생들에게, 그리고 직무연수 이수 여부는 경제이해력이 높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교사의 경제학 교육과 전문성 개발이 학생들의 경제 이해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학교급과 학생의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3. 경제교육의 지각된 효용성: 교사 효능감과 전문성 개발의 상호작용

학교 경제교육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단순한 신념의 형태를 넘어 유용성과 가치를 개인이나 집단이 어느 정도로 인식하는지를 나타내며, 신념보다 더 객관적이고 평가적인 개념이다. ‘학교 경제교육의 지각된 효용성’은 경제교육이 실제로 학생들의 학습과 삶에 얼마나 유용하다고 느껴지는지, 실제 생활과 미래에 얼마나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되는지, 교사와 학생들이 경제교육의 실용적 가치와 효과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다.

Bandura (1977)는 자기효능감을 ‘주어진 노력을 통해 원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로 정의했다. 이 개념이 교육 분야에 적용되면서, 교사 효능감은 ‘학습 의욕이 낮거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도 수업에 참여시키고 학습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교사의 자기 능력 판단’으로 발전했다(Tschannen-Moran and Hoy, 2001, p.783). 또한 교사 자기효능감은 수업 준비도, 목표 설정, 난관 극복의 인내심, 좌절 상황에서의 회복력과 같은 교사의 개인적 신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Tschannen-Moran et al., 1998). 학교 경제교육에 대한 교사의 관점은 자기효능감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경제교육이 학생들에게 유익하다고 믿는 교사는 수업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높은 목표를 설정하며,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도 끈기를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실패나 좌절을 경험하더라도 회복력을 통해 다시 도전하려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지각된 효용성은 경제교육의 실질적인 가치와 효과성에 대한 합리적 평가를 의미하며, 교육의 실행과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석이 필요하다.

경제교육의 지각된 효용성은 교사의 전문성 개발 과정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Desimone (2009)는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TPD)이 교사의 지식과 기능 향상뿐 아니라, 교육에 대한 태도와 신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특히 콘텐츠 집중, 능동적 학습, 일관성, 적절한 기간, 집단적 참여라는 다섯 가지 요소를 통해 교사들은 교육의 실질적 가치를 경험하고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형성된 경제교육에 대한 효용성 인식은 Girvan et al. (2016)이 지적한 것처럼, 교사들의 교육 개혁 수용과 실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교사들이 경제교육의 가치와 효용성을 직접 경험하고 인식할 때, 단순한 감정적 저항을 넘어 적극적인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특히 Desimone (2009)가 제시한 상호작용적 모델은 교육 실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긍정적 경험이 교사의 신념과 태도 변화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학생들의 학습 향상으로 연결되는 선순환을 설명한다. 종합하면, 교사의 전문성 개발 과정에서 형성되는 지각된 효용성은 교실 수업의 실질적 변화와 학생들의 학습 성과 향상으로 이어지는 핵심 동인이 될 수 있다. 이는 경제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교사의 효능감과 전문성 개발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해야 함을 시사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자료

본 연구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국적으로 실시한 ‘2020년 학교 경제교육 실태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이 조사에는 초등학교 244개, 중학교 226개, 고등학교 260개가 선정되었고, 조사 대상은 각 학교의 경제교육 담당 교사들이다. 해당 조사에서는 전국 초중고 학생들의 경제이해력 조사도 함께 이루어졌으며, 학생의 경제이해력과 경제교육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경제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었다(서중해 외, 2020). 조사는 2020년 11월 2일부터 11월 13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학교급별 조사대상자 분포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집단 및 학교별 연구대상 분포

학교급		연구대상	사례 수	
초등		6학년 담임 또는 사회과 교사(경제 관련 지도 교사)	244	
중등	중	사회과 교사	226	486
	고	사회과 교사(통합사회, 경제수업 담당 교사)	260	

2. 연구 설계

본 연구에서는 먼저 초등 및 중등 교사의 경제교육 실태 데이터로 경제교육 참여와 지각된 효용에 대한 응답 반응에서 유사한 응답 패턴을 보이는 집단을 분류하고자 한다. 경제교육 참여와 지각된 효용은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고 교육에는 참여하지만 효용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 효용성은 느끼지만 교육에는 참여하지 않는 경우 등 연구 대상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분포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혼합 분포를 고려해 집단을 분류하고 예측변수의 영향, 종속변수의 차이를 한 모형에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속형 데이터를 다루는 데 주로 사용되는 잠재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 범주형 데이터를 다루는데 사용되는 잠재계층 분석(Latent Class Analysis, LCA)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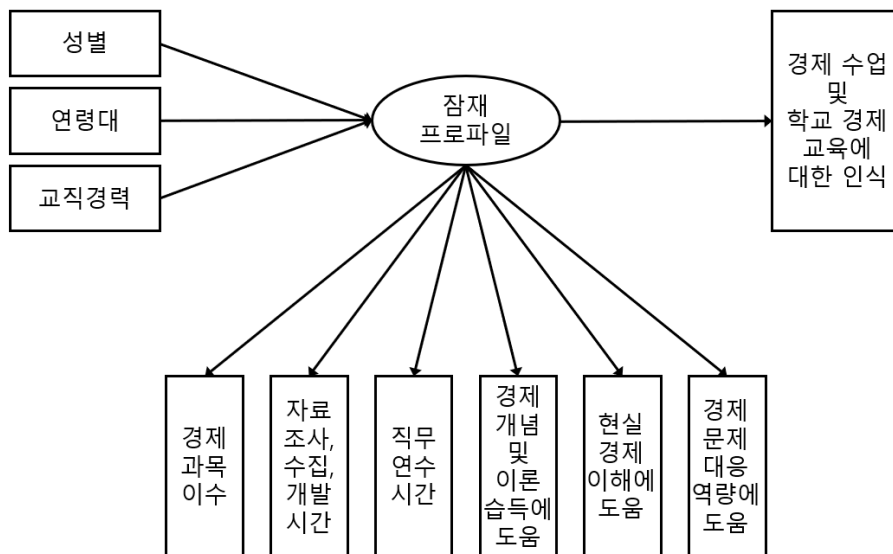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모형으로 잠재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활용하였다. 잠재프로파일 분석은 관심 변수의 평균과 분포를 파악하거나 변수와 변수 간의 상관 또는 인과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변수 중심적 접근(variable-oriented approach)이 아니라 개인별 특성에 차별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개인 중심적 접근(person-oriented approach) 방법이다(Bergman and Magnusson, 1997). 경제교육 참여와 지각된 효용 문항에 응답하는 반응은 개인마다 다르며 이러한 차이는 독특한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에 기반하여 유사한 응답 패턴을 나타내는 표본을 그룹화하여 몇 개의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어떤 집단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집단 분류를 예측하는 변수를 모형에 투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예측변수로 성별, 연령, 교직경력을 투입하였다. 연령대와 교직경력은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지만, 교육대학교나 사범대학 입학 연령 분포가 다양하고, 군 복무 기간 등으로 남교사와 여교사의 근무 경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10년 단위인 연령대 변수와 3년 단위인 경력 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였다.

다음으로, 분류된 잠재프로파일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제 수업과 학교 경제교육 실행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는 분류된 집단별로 경제 수업 및 학교 경제교육에 대해 다르게 인식할 것이라고 가정하였음을 의미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경제교육 참여와 지각된 효용성의 다차원 특성이 가지는 혼합분포를 잠재프로파일 분석으로 분류하여 집단을 구분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수의 영향력이 도출된다. 인구 통계학적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된 상태에서 분류된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 각 집단별로 경제 수업 및 학교 경제교육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 모형에 포함된 측정 오차는 도식에서 생략하여 나타낸 것임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측정도구의 특성과 문항 예시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먼저, 경제교육 참여 관련 지표변수로 (1) 경제 과목 이수 개수, (2) 자료 조사·수집·개발에 투입하는 시간, (3) 경제수업 관련 직무연수 이수 시간을 사용하였다. 경제 과목이나 직무연수에 참여한 시간, 자료 조사·수집·개발에 투입한 시간이 많을수록

경제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의미이다. 지각된 효용성은 경제교육이 학생들의 학습과 삶에 얼마나 유용하다고 느껴지는지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지각된 효용성과 관련된 지표변수로는 (4) 경제 개념 및 이론 습득에 도움되는 정도, (5) 현실 경제 이해에 도움되는 정도, (6) 경제 문제 대응 역량에 도움되는 정도를 사용하였다.

예측변수로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로 성별, 연령대, 교직경력을 사용하였으며, 잠재 프로파일별 특징을 면밀히 설명하기 위하여 경제 수업 및 학교 경제교육 관련 인식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 경제 수업 시 어려움, (2) 학생 중심 경제 수업 실시, (3) 수업 중 적극적 의사소통, (4) 학생의 수업 참여 수준, (5) 학생의 성취도, (6) 학교 경제교육 운영 만족도를 활용하였다. 연구모형에 투입한 주요 변수를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표 2> 주요 변수의 문항 내용 및 변수처리 방법

구분		문항 내용	변수처리
예측 변수 (인구 통계학적 특성)	성별	(0) 여교사, (1) 남교사	명목형
	연령대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이상	연속형
	교직경력	(1) 3년 이하, (2) 4-7년, (3) 8-11년, (4) 12-15년, (5) 16-19년, (6) 20-23년, (7) 24년 이상	연속형
지표 변수	경제교육 참여	경제학 관련 과목 이수 개수 (1) 이수하지 않음, (2) 1~2과목, (3) 3~4과목, (4) 5~6과목, (5) 7과목 이상	Z점수 변환
		경제 수업 자료 조사·수집·개발 투입 시간	로그변환 및 Z점수 변환
	지각된	경제 수업 관련 직무 연수 이수 시간 (18년 1월~현재)	로그변환 및 Z점수 변환
	효용성	경제 개념 및 이론 습득에 도움 (1) 매우 도움이 된다 ~ (5) 전혀 도움이 안된다 <역코딩>	Z점수 변환
	현실 경제 이해에 도움 (1) 매우 도움이 된다 ~ (5) 전혀 도움이 안된다 <역코딩>	Z점수 변환	

구분		문항 내용	변수처리
	경제 문제 대응 역량에 도움	학교 경제교육이 실생활에서 겪는 문제에 대응하는 역량 강화에 도움 여부 (1) 매우 도움이 된다 ~ (5) 전혀 도움이 안된다 <역코딩>	Z점수 변환
종속 변수 (경제 수업 및 학교 경제 교육에 대한 인식)	경제 수업 시 어려움	경제 수업 시 어려움을 느낀 경우 (1) 매우 많다 ~ (4) 전혀 없다 <역코딩>	연속형
	학생 중심 경제 수업	경제 수업에서 학생들의 활동 수행 방식 결정 방법 (1) 학생이 전적으로 결정한다 ~ (5) 선생님이 전적으로 결정한다 <역코딩>	연속형
	적극적 의사소통	경제 수업에서 학생 상호 간 혹은 교사와 학생 간 학습 내용 및 활동에 관한 의사소통 (1) 매우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 (5) 매우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역코딩>	연속형
	학생의 수업 참여	경제 수업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 (1) 매우 적극적이다 ~ (5) 매우 소극적이다 <역코딩>	연속형
	학생의 성취도	경제 수업 학습목표에 대한 학생들의 성취도 (1) 매우 높다 ~ (5) 매우 낮다 <역코딩>	연속형
	학교 경제교육 운영 만족도	학교의 경제 교육과정 운영 만족도 (1) 매우 만족한다 ~ (5) 매우 불만족한다 <역코딩>	연속형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초등 및 중등 교사의 경제교육 실태 데이터로 경제교육 참여와 지각된 효용에 대한 응답 반응에서 나타나는 응답 패턴에 따라 공통점을 나타내는 몇 개의 하위 집단이 도출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잠재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예측변수로 투입하여 집단 분류에 대한 예측 정도를 확인하였고, 집단별 경제 수업 및 학교 경제교육에 대한 인식의 응답 평균 차이를 비교하였다(<그림 1> 참조).

잠재프로파일 분석에서는 최적의 집단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정보지수로 AIC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kaike, 1974), BIC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Schwarz, 1978), SABIC (Sample-size Adjuste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Sclove, 1987)을 사용하였다. AIC, BIC, SABIC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AIC = -2\ln(L) + p$$

$$BIC = -2\ln(L) + p\{\log(n)\}$$

$$SABIC = -2\ln(L) + p[\log\{(n+2)/24\}]$$

※ $\ln(L)$ = log likelihood, p = 추정모수의 수, n = 표본 크기

다음으로, Entropy를 확인하여 집단 분류의 질을 확인하였다. 한 잠재프로파일에 속할 확률이 1에 가깝고 다른 잠재프로파일에 속할 확률이 0에 가까운 샘플이 많을 수록, 즉 집단 분류가 명확할 경우 Entropy는 증가한다. Entropy가 0.8 이상이면 좋은 분류라고 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E_k = \frac{\sum_i \sum_k -P_{ik} \ln P_{ik}}{N \ln(K)}$$

※ P_{ik} = 집단 k 에 속할 개인 i 의 사후 확률, N = 표본 크기, K = 잠재 계층의 수

다음으로, LMR LRT (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 조정된 차이 검증) (Lo, Mendell, and Rubin, 2001)과 BLRT (Parametric Bootstrapped Likelihood Ratio Test: 모수적 부트스트랩 우도비 검증) (McLachlan and Peel, 2000)를 이용하여 모형을 비교하였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잠재프로파일 수가 k 개인 모형과 $k-1$ 개인 모형 간의 차이를 검증하는데 공통적으로 활용한다. 추정 결과를 통해 산출되는 p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p < .05$) k 개의 잠재프로파일 모형을, 유의하지 않은 경우($p > .05$)에는 $k-1$ 개의 잠재프로파일 모형을 선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교육 참여와 지각된 효용성에 대한 6문항의 지표 변수로 잠재 프로파일을 도출하고, 잠재프로파일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의 영향력을 다항로짓계수(multinomial logit coefficient)를 통해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분류된 각 집단의 특성을 기술하고 집단별로 경제 수업 및 학교 경제교육에

대한 인식 수준의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잠재프로파일을 도출할 때 예측변수와 결과변수를 연구 모형에 포함시키면, 각 변수들이 잠재프로파일 분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Vermunt (2010)가 제안한 3단계 접근법 (3step approach)에 따라 예측변수의 영향력을 확인할 때는 R3STEP을 종속변수의 차이를 검증할 때는 BCH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mplus* 8.1을 이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초등학교사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1) 초등학교사 잠재프로파일 수 결정

초등학교사의 경제교육 참여와 지각된 효용성이 어떠한 잠재프로파일로 분류되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정보지수, 분류의 질, 모형비교 검증, 분류율이 프로파일 수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하였다.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1개씩 늘려가며 분류 기준의 적합성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였다. 각 문항의 점수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Z점수로 변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간 변수는 편포를 보정하기 위하여 로그변환은 한 후 Z점수로 변환하였다.

AIC, BIC, SABIC는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계속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Entropy 값은 모두 .90 이상으로 분류의 질이 양호하였다. 모형비교를 위한 LMR LRT, BLRT 검증에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잠재프로파일이 3개일 때와 4개일 때를 비교했을 때 유사한 패턴을 가진 집단이 수준만 다르게 나타나 특성차이라기 보다는 수준차이로 간주하여 하나의 프로파일로 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고, 해석 가능성과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3개의 프로파일로 분류하는 것으로 확정였다(<표 3> 참조).

<표 3> 잠재프로파일 분류 기준

잠재프로파일 수	정보지수			분류의 질 Entropy	모형비교 검증*		잠재계층 분류율(%)			
	AIC	BIC	SABIC		LMR LRT	BLR T	1	2	3	4
1개	4172.643	4214.609	4176.570				100			
2개	3728.762	3795.208	3734.980	.989	.000	.000	71.0	29.0		
3개	3597.567	3688.494	3606.077	.962	.017	.000	55.0	28.6	16.4	
4개	3389.533	3504.940	3400.333	.957	.006	.000	16.3	54.2	15.5	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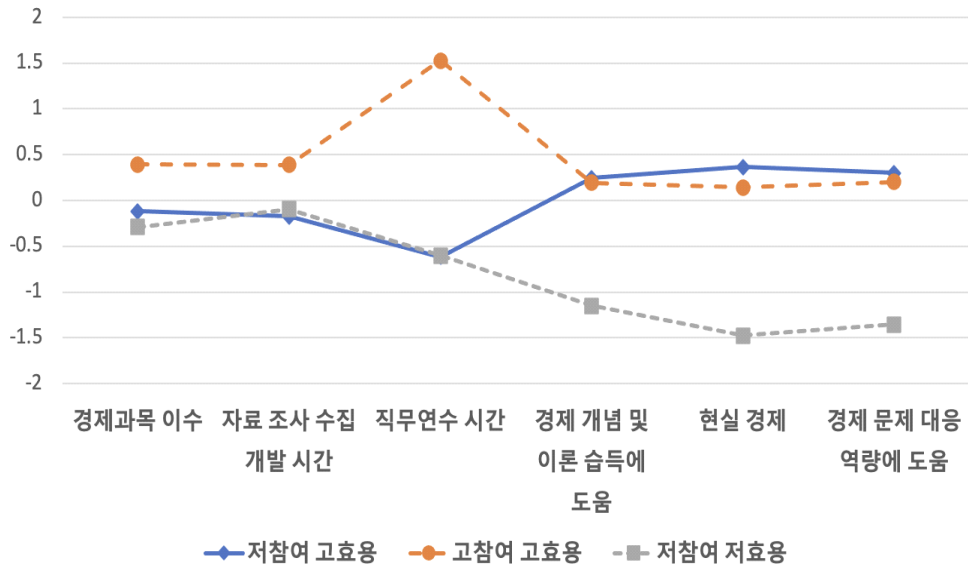
2) 초등교사 잠재프로파일 형태

3개의 유형으로 분류된 각 잠재프로파일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Class1에는 134명(55.0%)이 포함되었으며 경제교육 참여는 적은 반면 지각된 효용성은 높은 특성을 나타내 ‘저참여 고효용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Class2에는 70명(28.6%)이 포함되었으며 경제교육 참여 수준과 지각된 효용성이 모두 높은 수준을 나타내 ‘고참여 고효용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Class3에는 40명(16.4%)이 포함되었으며 경제교육 참여 수준과 지각된 효용성이 모두 낮은 수준을 나타내 ‘저참여 저효용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잠재프로파일별 각 지표변수의 z점수는 <표 4>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표 4> 잠재프로파일별 경제적 역량 지표변인 z점수

구분	경제과목 이수	자료 조사 수집 개발 시간	직무연수 시간	경제 개념 및 이론 습득에 도움	현실 경제 이해에 도움	경제 문제 대응 역량에 도움
저참여 고효용 Class 1 (n=134, 55.0%)	-.117	-.175	-.616	.243	.365	.299
고참여 고효용 Class 2 (n=70, 28.6%)	.392	.390	1.529	.192	.144	.204
저참여 저효용 Class 3 (n=40, 16.4%)	-.292	-.093	-.603	-1.150	-1.474	-1.356

<그림 2> 초등교사 잠재프로파일 형태



3) 초등교사 잠재프로파일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수의 영향력 검증

초등교사 잠재프로파일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로짓계수와 유의도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남교사의 경우 ‘저참여 저효용’ 집단 보다 ‘저참여 고효용’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2.355배 높았으며(B=.857, $p<0.5$), ‘고참여 고효용’ 집단에 속할 가능성도 2.655배 높았다(B=.976, $p<0.5$). 하지만 성별은 ‘저참여 고효용’ 집단과 ‘고참여 고효용’ 집단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연령대와 교직경력은 모든 집단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잠재프로파일 분류의 영향요인 (각 비교별 아래 있는 집단이 참조집단임)

변인	저참여 고효용 vs 저참여 저효용(참조)			고참여 고효용 vs 저참여 저효용(참조)			고참여 고효용 vs 저참여 고효용(참조)		
	B	S.E.	O.R.	B	S.E.	O.R.	B	S.E.	O.R.
성별	.857*	.410	2.355	.976*	.433	2.655	.120	.306	1.127
연령대	.005	.265	1.005	.134	.270	1.143	.129	.180	1.138
교직경력	.074	.119	1.077	.018	.126	1.018	-.056	.087	.945

* $p<0.05$

4) 초등교사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경제교육에 대한 인식의 차이

잠재프로파일별로 경제 수업과 학교 경제교육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경제 수업 시 어려움, 학생 중심 경제 수업은 집단 간 차이가 없었으나, 적극적 의사소통, 학생의 수업 참여, 학생의 성취도, 학교 경제교육 운영 만족도는 공통적으로 ‘저참여 저효용’ 집단보다 ‘저참여 고효용’ 및 ‘고참여 고효용’ 집단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잠재프로파일별 경제 수업 및 학교 경제교육에 대한 인식의 평균 차이

종속 변인	초등교사 잠재프로파일 유형			χ^2	사후검정
	저참여 고효용 (n=134, 55.0%)	고참여 고효용 (n=70, 28.6%)	저참여 저효용 (n=40, 16.4%)		
경제 수업 시 어려움	2.870	2.900	3.036	1.560	
학생 중심 경제 수업	2.514	2.529	2.205	4.955	
적극적 의사소통	3.697	3.859	3.138	11.832**	1=2>3
학생의 수업 참여	3.706	3.887	3.084	23.031***	1=2>3
학생의 성취도	3.563	3.672	3.014	19.200***	1=2>3
학교 경제교육 운영 만족도	3.351	3.429	2.574	40.254***	1=2>3

* $p<0.05$, ** $p<0.01$, *** $p<0.001$

2. 중등교사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1) 중등교사 잠재프로파일 수 결정

AIC, BIC, SABIC는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계속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Entropy 값은 모두 .90 이상으로 분류의 질이 양호하였다. 모형비교를 위한 LMR LRT, BLRT 검증에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잠재프로파일 수를 4개로 늘렸을 때는 모형 추정에 실패하여 최종적으로 적합한 모형은 잠재프로파일

수가 3개일 때의 모형으로 확정하였다(<표 7> 참조).

<표 7> 잠재프로파일 분류 기준

잠재프로파일 수	정보지수			분류의 질 Entropy	모형비교 검증*		잠재계층 분류율(%)			
	AIC	BIC	SABIC		LMR LRT	BLRT	1	2	3	4
1개	8293.238	8343.473	8305.385				100			
2개	7737.181	7816.719	7756.414	.910	.000	.000	75.0	25.0		
3개	7506.192	7615.034	7532.511	.966	.018	.000	22.3	55.1	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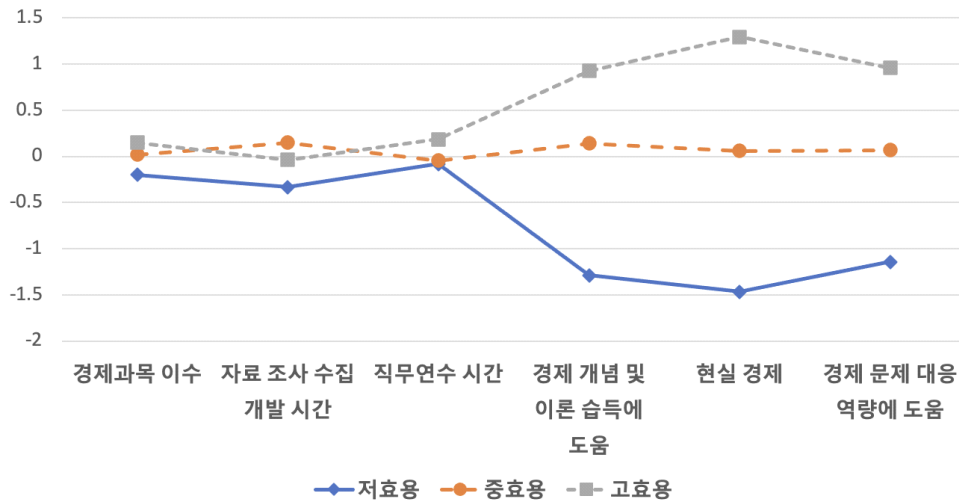
2) 중등교사 잠재프로파일 형태

3개의 유형으로 분류된 각 잠재프로파일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세 집단 모두 참여의 수준은 유사하였지만 지각된 효용성의 수준에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Class1에는 107명(22.3%)이 포함되었으며 지각된 효용성이 낮은 특성을 나타내 ‘저효용’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Class2에는 269명(55.1%)이 포함되었으며 지각된 효용성이 중간 수준을 나타내 ‘중효용’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Class3에는 110명(22.6%)이 포함되었으며 지각된 효용성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 ‘고효용’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잠재프로파일별 각 지표변수의 z점수는 <표 8>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표 8> 잠재프로파일별 경제적 역량 지표변인 z점수

구분	경제과목 이수	자료 조사 수집 개발 시간	직무연수 시간	경제 개념 및 이론 습득에 도움	현실 경제 이해에 도움	경제 문제 대응 역량에 도움
저효용 Class 1 (n=107, 22.3%)	-.200	-.334	-.082	-1.287	-1.464	-1.143
중효용 Class 2 (n=269, 55.1%)	.020	.151	-.044	.141	.060	.068
고효용 Class 3 (n=110, 22.6%)	.148	-.037	.188	.926	1.297	.961

<그림 3> 중등교사 잠재프로파일 형태



3) 중등교사 잠재프로파일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수의 영향력 검증

중등교사 잠재프로파일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로짓계수와 유의도는 <표 9>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은 집단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저효용’ 집단 보다 ‘고효용’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1.651배 높았으며($B=.501, p<0.1$), ‘중효용’ 집단에 속할 가능성도 1.399배 높았다($B=.336, p<0.1$). 하지만 연령이 높을수록 ‘고효용’ 집단 보다는 ‘중효용’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B=-.336, p<0.1$). 교직경력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는데, 교직경력이 높을수록 ‘저효용’ 집단 보다 ‘고효용’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1.235배 높았으며($B=.211, p<0.1$), ‘중효용’ 집단에 속할 가능성도 1.135배 높았다($B=.127, p<0.5$). 하지만 교직경력이 높을수록 ‘고효용’ 집단 보다는 ‘중효용’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B=-.127, p<0.5$). 중등교사의 경우 성별은 집단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잠재프로파일 분류의 영향요인 (각 비교별 아래 있는 집단이 참조집단임)

변인	고효용 vs 저효용(참조)			중효용 vs 저효용(참조)			고효용 vs 중효용(참조)		
	B	S.E.	O.R.	B	S.E.	O.R.	B	S.E.	O.R.
성별	.050	.227	1.051	.223	.347	1.249	-.173	.233	0.800
연령대	.501**	.145	1.651	.336**	.122	1.399	-.336**	.122	0.715
교직경력	.211**	.068	1.235	.127*	.059	1.135	-.127*	.059	0.881

* $p<0.05$, ** $p<0.01$, *** $p<0.001$

3) 중등교사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경제교육에 대한 인식의 차이

잠재프로파일별로 경제 수업과 학교 경제교육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경제 수업 시 어려움은 ‘저효용’ 집단에서 ‘중효용’, ‘고효용’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겪고 있었다. 학생 중심 경제 수업은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적극적 의사소통, 학생의 수업 참여, 학생의 성취도, 학교 경제교육 운영 만족도는 공통적으로 ‘고효용’ 집단, ‘중효용’ 집단, ‘저효용’ 집단 순으로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잠재프로파일별 경제 수업 및 학교 경제교육에 대한 인식의 평균 차이

종속 변인	중등교사 잠재프로파일 유형			χ^2	사후검정
	저효용 (n=107, 22.3%)	중효용 (n=269, 55.1%)	고효용 (n=110, 22.6%)		
경제 수업 시 어려움	3.152	2.954	2.863	9.455**	1>2=3
학생 중심 경제 수업	2.129	2.269	2.346	5.361	
적극적 의사소통	3.061	3.426	3.712	31.123**	3>2>1
학생의 수업 참여	2.908	3.585	3.985	86.294***	3>2>1
학생의 성취도	2.902	3.308	3.658	50.354***	3>2>1
학교 경제교육 운영 만족도	2.648	3.220	3.447	62.247***	3>2>1

* $p<0.05$, ** $p<0.01$, *** $p<0.001$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중등 교사의 경제교육 참여와 지각된 효용성에 따른 응답 특성을 분석하여 유사한 응답 패턴을 나타내는 교사 집단을 분류하고, 이들 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경제교육 인식의 차이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제교육 참여와 지각된 효용성은 상호작용적 관계를 형성한다. 경제교육 참여는 교사들에게 실질적 경험을 제공하여 경제교육의 가치를 더 깊이 인식하게 하며, 반대로 높은 효용성 인식은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이는 경제교육 참여와 효용성을 동시 분석하지 않을 경우, 중요한 상호작용 효과를 놓칠 위험이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 결과, 초등학교 교사들은 경제교육 참여와 효용성 인식 수준에 따라 ‘저참여-고효용’, ‘고참여-고효용’, ‘저참여-저효용’의 세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남교사는 ‘저참여-저효용’ 집단에 비해 ‘저참여-고효용’ 또는 ‘고참여-고효용’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연령과 교직경력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초등학교에서 성별에 따른 경제교육 참여 및 효용성 인식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성별에 따른 참여도가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자신감 향상을 위한 소규모 실습형 연수와 사례 공유를 지원하고, 자신감이 높은 교사는 리더십 역할을 통해 워크숍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등학교 교사들은 경제교육 참여 수준이 유사한 가운데 효용성 인식에 따라 ‘저효용’, ‘중효용’, ‘고효용’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중등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연령과 교직경력이 높을수록 ‘중효용’ 또는 ‘고효용’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경제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중등교사일수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제교육의 효용성을 더 높게 인식함을 시사하며, 저연령 및 저경력 교사의 효용성 인식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저연령 교사 및 저경력 교사의 초기 경험을 지원하기 위한 모듈형 자료와 경제교육 워크숍, 필수 직무연수, 기본 경제교육 연수를 제공해야 한다. 고연령 및 고경력 교사를 대상으로 최신 경제 문제와 이슈 관련 연수를 제공하고, 협력 기회를 통해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심화 연수와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초등학교에서는 ‘저참여-고효용’ 및 ‘고참여-고효용’ 집단에서 학생들과의 활발한 의사소통과 참여가 이루어졌으며, 학생들의 성취도와 경제교육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중등학교에서도 효용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높은 성취도, 낮은 어려움이 관찰되었다. 이는 교사들의 지각된 효용성이 경제교육의 질

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임을 시사한다.

연구 결과, 초등 및 중등 교사 모두 경제학 과목 이수와 경제 수업 자료 준비 시간에서 큰 차이가 없었으나, 경제교육 관련 직무연수 참여율과 충분한 역량을 갖춘 교사 비율은 낮았다. 이는 교사의 경제적 역량 부족이 초·중등 경제교육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예비 교사 교육 확대와 함께 현직 교사 전문성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Bosshardt and Walstad (2019)는 현직 교원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과 양질의 경제학 교재 제공이 병행된다면 예비 교사와 현직 교사의 경제교육 역량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Grimes et al. (2010)의 연구는 교사들이 공식적인 경제학 교육이 부족하더라도 교육 경험을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제 이해력이 향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Baron-Donovan et al. (2005)의 연구는 체계적으로 설계된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이 교사의 만족도와 자신감을 높이고, 교육 동기와 신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이는 현직 교사를 위한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과 직무연수 설계가 교사 역량 강화에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교사 전문성 개발과 관련하여 Desimone (2009)의 모델은 물론, 금융교육에서 교사 전문성 개발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수행한 Compen et al. (2019)를 경제교육 분야의 교사 전문성 개발에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경제학 교육을 위해 다양한 교수법의 적용과 평가가 필요하다. Becker (1997)는 대학 경제학 수업에서 토론, 집단 활동, 피드백 등 소규모 학습 방법을 강조하였으며, 대규모 강의에서도 다양한 교수법과 추가 자료 제공을 통해 학생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는 교사 연수에도 적용 가능하다. Allgood et al. (2015)의 연구는 협동 학습과 동료 학습의 효과를 보여주며, 경제교육에서도 다양한 교수법 도입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교사의 지각된 효용성이 학생들의 경제교육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주었다. 교사가 경제개념과 이론 습득, 현실 경제 이해, 경제문제 대응 역량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수록 효과적이고 만족도 높은 경제교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를 위해 예비 교사 교육 확대, 효과적인 교수법 도입, 지속적인 현직 교사 연수와 같은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교사의 경제 이해력과 교육 역량을 향상하고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더 나은 경제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 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공

된 데이터의 특성상 다양한 예측 변수를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추후 실태조사에는 경제교육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성 변수를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는 교사의 경제교육 참여와 지각된 효용성에 따른 집단 분류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교사 응답 자료만 활용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학생의 경제 이해력 변수를 포함하여 교사의 경제교육 참여와 지각된 효용성이 실제 학생들의 경제 이해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사들의 경제교육 참여가 저조한 원인이 관심 부족, 접근성 부족, 또는 기타 요인 때문인지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교사 참여 동기와 장애 요인을 심층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넷째, 경제교육 참여와 효용성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와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종단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김형규·조병철(1998),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학생들의 경제지식과 중등학교 경제교육에의 시사점, *중등교육연구*, 41, 167-184.
- 노현종·박상은(2018), 성인의 경제이해력과 관심도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류 및 영향요인 검증, *경제교육연구*, 25(3), 87-106.
- 서중해·심재학·주호성·이재열·정영호·이성신·안선경·김은희·이승주·조선영·박지연·윤승휘·이지현·김소희·이재영·이승찬·고광숙·박형준·장경호·한진수(2020), 2020년 초·중·고 학생 경제이해력 조사,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
- 송민자·박형준(2008), 예비 사회과 교사들의 경제 이해력 검사, *경제교육연구*, 15(1), 51-74.
- 신세라(2024), 학생의 경제이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와 교사요인에 대한 다층모형 분석: 초·중·고등학교의 비교, *소비자문제연구*, 55(1), 183-213.
- 신우진(2022), 학교 및 교사 특성이 고등학생 경제이해력에 미치는 영향, *경제교육연구*, 29(2), 107-137.
- 안병근(2007), 교육대학교에서의 경제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초등사회과교육*, 20(1), 57-69.
- 최은경(2021), 교육대학에서 교양 경제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양교육연구*, 15(6), 367-381.
- 한진수(2002), 한국의 초등교사는 경제 지식을 충분히 지니고 있는가?, *교육논총*, 19(1), 1-28.
- Akaike, H. (1974), A new look at the statistical model identification, *IEEE Transactions on Automatic Control*, 19, 716-723.
- Akhan, N. E. (2015), Economic literacy levels of social studies teacher candidates, *World Journal of Education*, 5(1), 25-39.
- Allgood, S., and Walstad, W. B. (1999), The longitudinal effects of economic education on teachers and their students, *The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30(2), 99-111.
- Allgood, S., Walstad, W. B., and Siegfried, J. J. (2015), Research on teaching economics to undergraduate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53(2), 285-325.
- Anthony, K. V., Smith, R. C., and Miller, N. C. (2015), Preservice elementary teachers' economic literacy: Closing gates to full implementation of the social studies

- curriculum, *The Journal of Social Studies Research*, 39(1), 29-37.
- Ayers, C. A. (2016), Developing preservice and inservice teachers'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in economics, *Social Studies Research and Practice*, 11(1), 73-92.
- Bandura, A. (1977), *Social learning theory*. New York, NY: General Learning Press.
- Baron-Donovan, C., Wiener, R. L., Gross, K., and Block-Lieb, S. (2005), Financial literacy teacher training: A multiple-measure evaluation, *Journal of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16(2), 63-75.
- Becker, W. E. (1997), Teaching economics to undergraduate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5(3), 1347-1373.
- Bosshardt, W. B., and Walstad, W. (2019), The undergraduate economics coursework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s, *The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50(4), 410-417.
- Bosshardt, W., and Watts, M. (1990), Instructor effects and their determinants in precollege economic education, *The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21(3), 265-276.
- Butters, R. B., Asarta, C. J., and Fischer, T. J. (2011), Human capital in the classroom: The role of teacher knowledge in economic literacy, *The American Economist*, 56(2), 47-57.
- Compen, B., De Witte, K., and Schelfhout, W. (2019), The role of teacher professional development in financial literacy education: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Educational Research Review*, 26, 16-31.
- Desimone, L. M. (2009), Improving impact studies of teachers' professional development: Toward better conceptualizations and measures, *Educational Researcher*, 38(3), 181-199.
- Grimes, P. W., Millea, M. J., and Thomas, M. K. (2010), Testing the economic literacy of K-12 teachers: A state-wide baseline analysis, *American Secondary Education*, 4-20.
- Lewis, D. R., and Bruce Johnstone, D. (1971), The perspective of economics and the social studies teacher, *The Social Studies*, 62(3), 117-120.
- McLachlan, G. J., and Peel, D. (2000), *Finite mixture models*, New York: Wiley.
- Schwarz, G. (1978), Estimating the dimension of a model, *The annals of statistics*, 6(2),

461-464.

- Sclove, L. (1987), Application of model-selection criteria to some problems in multivariate analysis, *Psychometrika*, 52, 333-343.
- Sinha, G., Tan, K., and Zhan, M. (2018), Patterns of financial attributes and behaviors of emerging adults in the United State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93, 178-185.
- Swinton, J. R., Scafidi, B., and Woodard, H. C. (2012). The impact of the teaching high school economics workshop for teachers on student achievement, *Eastern Economic Journal*, 38, 401-416.
- Tschannen-Moran, M., and Hoy, A. W. (2001), Teacher efficacy: Capturing an elusive construct,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17(7), 783-805.
- Tschannen-Moran, M., Hoy, A. W., and Hoy, W. K. (1998), Teacher efficacy: Its meaning and measure,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8(2), 202-248.
- Vermunt, J. K. (2010), Latent class modeling with covariates: Two improved three-step approaches, *Political Analysis*, 18, 450-469.
- Walstad, W. B., and Watts, M. (2015), Perspectives on economics in the school curriculum: Coursework, content, and research, *The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46(3), 324-339.

<Abstract>

Economic Competence of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s: A Multidimensional Profile Approach Based on Economic Education Participation and Perceived Utility

Sangeun Park* · Hyunjong Noh**

It is of paramount importance to comprehend the function of educators in the context of economic education and their perceived utility of such instruction in order to develop effective policies for both prospective and in-service teachers. The 2020 School Economic Education Survey,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and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revealed that in elementary schools, teachers who perceived high utility in economic education fostered greater student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Similarly, in secondary schools, a positive correlation was identified between teachers' perceptions of economic education's utility and student outcomes, including participation, achievement, and satisfaction.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pivotal role of teachers' perceptions of the utility of economic education across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To address this,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s should facilitate teachers' experience and recognition of the practical value of economic education. Such initiatives are expected to enhance teachers' self-efficacy and lead to qualitative improvements in economic education within schools.

Key words: Economic education participation, Perceived usefulness, Teacher education policy, Teachers' economic competence, Elementary and secondary teachers

원고접수: 2024년 11월 10일 심사일: 2024년 11월 11일 ~ 2024년 12월 11일
게재확정: 2024년 12월 12일

* First Author, Senior Researcher, Daegu Future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sangeunpark@korea.kr).

** Corresponding Author, Lecture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igel96@hanmail.net).